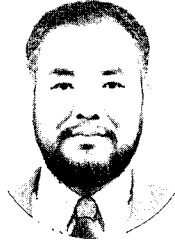


ESCASD : 환경제국주의에



전 경 수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금년 1993년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유엔이 정한 原住民의 해(Year of the Indigenous People)다. 작년에 “신대륙발견” 500주년의 거창한 축하행사를 벌인 유럽사람들이 좀 쾅기는데가 있는지 새삼스럽게 금년을 원주민들에게 할양한 것처럼 보인다. 지난 오백년동안 이세상의 이곳 저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강제이동을 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성적 인 유린을 당하고, 정신도 빼앗기는 경험을 한 원주민들의 입장을 이제사 돌아다볼 겨를이 생긴 모양이다. 게걸스러운 한바탕의 축배를 들고나니, 이제사 옆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죽어가는 몰골과 행색이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유럽사람들의 식민지 경영에 의해서, 전세계의 인민들은 유럽인들의 정복 대상인 “원주민”이 되어버린 것이다. 식민주의라는 틀속에서 원주민들이 정복당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현상을 위리들은 흔히 문화제국주의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 문화제국주의의 맥락에 걸려들게 되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수성의 메카니즘까지 착취당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기준이 유럽인들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평가절하되게 마련이다. 사실상 “원주민”들의 전통 문화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날의 원주민들은 정신이상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유럽인들의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움직여온 삶이 바로 십오세기 이후 호모 사피엔스의 삶이다. 그 결과 호모 사피엔스는 자신의 亞種인 “호모 유러피엔시스”(Homo europeansis)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만 현상이 발생한 것

이다.

그 과정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인간을 회복하려는 운동과 자각이 일어났고, 인간파멸의 벼랑끝에서 비로서 인간회복을 위한 선언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원주민 해”의 제정이다. 문화제국주의의 종언을 선언하는 기념비적인 사업이지만, 문화제국주의의 관성은 쉽사리 체동이 걸려질지 사뭇 의문스럽다. 그 징후가 바로 환경이라는 상표를 앞세운 또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의 등장이 아닌가 한다.

작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지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젠다 21을 비롯한 환경관계의 모든 문서들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낸 상징적인 용어가 “ESSD-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귀착되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지구환경 실천강령”이라는 책자가 우리나라의 경제기획원 산하에 구성된 지구환경대책기획단에서 번역출간되기도 하였다. 환경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과 기관들은 하나같이 앵무새들 처럼 “ESSD”를 마치 선전문구나 상표처럼 읊조리고 있다. 그 개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깊은 천착과정이 없이, 걸핏하면 그 용어를 남발하는 실정이 목격전행중이다.

나는, 그 용어의 번역과정에서 부터, 그 용어를 번역한 사람들이 제대로 그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번역작업을 시도한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고, 영어사전(고등학생이 학력고사 준비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내용수준인)에 의존한 순진한 번역의 오류가능성을 점검도 하지 않은 채로, 소위 환경분야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까지도 마구잡이로 그 용어를 남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항하는 이론적인 개념

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sustainable development”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개발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끔찍한 오해와 무식의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체적으로 공감되고 있는 “ESSD”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용어의 이해에 관련된 두가지 문제점들을 교육의 차원에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그 개념에 관한 이해에 정황에 관한 문제다. 요약하면, 그 용어는 개발에 역점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식자들의 상황이다. 사실 그 용어의 기본정신은 “development”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는 “sustainable”에 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독일어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다. 독일어로 된 이 단어는 “Nachhaltigkeit”다. 즉 어떤 시점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의미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임학자들 사이에서 이 용어의 번역을 “보속”이라고 시도한 바 있다. 한편, 이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development”라는 용어는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택지개발·도시개발·정책개발”등과 같은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발전”이라고 이해되어야 하는 맥락의 용어다. “개발”의 의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발전”이라는 보다 큰 의미를 사상시켜버린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용어의 개념에 충실한 번역어로서 “보속발전”을 제안한다.

둘째, 이 용어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참여한 사람들이 주로 서구인들이기 때문에 발생한 이 용어자체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즉 궁극적으로 따지고 들면, 이 용어는 서구문화의 인식구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용어는 “환경적으로 건강한”이라는 서구인들

의 관심만을 충족시키는 내용의 형용구를 달고 있다. 결국, 보속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 내세운 것이 환경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문화제국주의적인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 이 개념은 환경만 강조하였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구인들 중심으로 보면, 그네들의 공동체속에서는 이미 묵계적으로 합의된 서구문화를 거론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立論된다면, 서구중심적인 문화를 탈피한 문화의 개념이 이 개념속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환경적으로 건강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수용가능한(culturally acceptable) 보속발전이라는 개념이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ESSD는 ESCASD(environmentally sound and culturally acceptable sustainable development)로 수정대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의 서구중심주의적인 전제와 물지각한 이해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고, 더군다나 억울한 심정까지 갖고 있다. 그 억울한 호소를 뒷받침해줄만한 이론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서 더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바로 쌀 문제다. 농민들이 호소하는 쌀수입 개방반대의 문화적인 측면이 수용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내가 제안하는 ESCASD다. 보속발전이라는 개념이 “환경적으로 건강한” 전제조건만을 내세울 때,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와 같은 제삼세의 주민들은 환경을 내세운 선진국의 압력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다. 이것이 바로 환경제국주의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국주의의 준동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수용가능한”이라는 전제조건을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인류는 문화제국주의에 이어서 환경제국주의에 의한 유린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될 것이다.